# 돈오돈수로 본 속칭 구원파의 구원 사상 연구

- '기쁜소식선교회'의 박옥수 사상을 중심으로 -

이 정 은\*

目 次

- 1. 서론
- 2. 돈오돈수 사상의 등장 배경과 특성
- 3. 구원파의 구원사상과 돈오돈수 사상 비교
- 4. 구원파 구원 사상이 지닐 수 있는 한계
- 5. 결론

# 1. 서론

본 논문은 성철의 돈오돈수 사상과 기독교에서 파생된 속칭 구원파 단체들 중 기쁜소식강남교회 목사 박옥수의 구원 사상을 비교하고 그 사상이 지닐 수 있는 한계 지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속칭 구워파 계열의 단체들은 공통

<sup>\*</sup>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sup>1) &#</sup>x27;구원파'라는 용어는 기독교계 신종교들에 대한 자료조사 및 연구를 활발히 시행했던 탁명환이 기독교에서 파생된 단체들 중 개인의 구원 체험을 특별히 강조하는 단체들을 대상으로 별칭처럼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후 '구원파'는 기성교회들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용어가 되었는데, 이에 속하는 단체는 크게 세 단체가 있다. 최근 세월호와 관련하여 회자되었던 권신찬, 유병언의 '기독교복음침례회'와 여기서 갈라져 나온 이요한(이복칠)의 '생명의말씀선교회', 그리고 박옥수의 '기쁜소식선교회'가 이에 속한다. 본고에서는 '기쁜소식선교회'의 박옥수의 사상을 기본으로 하지만, '박옥수 구원파'라는 용어도 함께 사용하고자 한다. 이요한과 박옥수 단체에서는 세월호 사건 이후 유병언 단체와 함께

적으로 1960년대 초. 개신교의 기성 교단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선교사들이었던 딕 욕(Dick York), 케이스 글라스(Kays Glass) 등의 영향 하에 등장하였다. 기 쁜소식선교회 측의 소개에 따르면 박옥수 또한 글라스 선교사의 전도를 받아 그의 나이 19세인 1962년 10월 7일, "모든 죄를 씻음 받고 거듭나는" 구워의 체험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후 선교사들의 운영하는 신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1976년 부터 '기쁜소식선교회' 선교학교를 세워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2) 속칭 구원 파의 다양한 갈래 중 박옥수의 사상에 주목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 구워 사상을 수 많은 저서와 강연을 통해 소개하고 체계화시키는 등 유병언이나 이요한 단체에 비 해 구원과 관련된 사상적 특징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박옥수 는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단 한 번 깨닫기만 하면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 회개를 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증거'이 며,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지옥에 가게 된다' 고 말한다. 이와 같은 주장은 '깨침과 닦음은 즉시에 완성되는 것이며, 한번 확철 대오한 이후에는 닦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성철의 돈오돈수 사상과 통하는 부분 이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성철의 돈오돈수 사상과 박옥수의 구원 사상을 비교한 후에, 돈오돈수적 관점에서 볼 때 박옥수의 사상이 가지고 있는 한 계 지점이 무엇인지 분석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sup>&#</sup>x27;구원파'라는 호칭으로 불리는 것에 대해 불편한 입장을 취한 바 있다. 실제로도 이 세 단체는 현재 서로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등 분명히 분리된 단체라 점에서 '기쁜소식선교회'로 지칭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이다. 하지만 본 논문의 목적은 성철의 돈오돈수 사상과 박옥수의 구원과 관련된 시각/주장을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옥수 구원파'는 구원과 관련된 박옥수의 교리적 강조점을 적절히 드러내준다는 점에서 본고에서 유용한 용어가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참고로 위 세 단체는 '구원의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공통적으로 기성교회와 구별되는 강조점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sup>2)</sup> 기쁜소식선교회 홈페이지(http://www.goodnews.or.kr/board/view/BOD\_ID/h istoryofthechurch/ B\_NO/3) 참조. 현재 박옥수는 기쁜소식강남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중이며, 기쁜소식선교회를 운영하고 있다. 2001년에는 국제청소년연합(IYF: International Youth Federation)이라는 단체를 설립하여, 매년 IYF 세계 대회, 사진 전시회, 중고등 및 대학생 영어 말하기 대회를 열어 젊은이들을 상대로 한 포교활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리고 '기쁜소식선교회'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집회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하기도 한다. 정동섭, 이영애, 『구원파를 왜 이단이라 하는가?』, (죠이선교회, 2004), 47-51 참고,

지금까지 지눌의 돈오점수와 기독교의 구원 사상을 비교하는 작업은 다수 이루 어져 왔다. 이와 관련된 연구물들은 대부분 존 웨슬리의 성화사상을 돈오점수에 빗대어 분석하고 있다.3) 해오(解悟) 이후의 점수(漸修)를 통해 궁극적 깨침을 향 해 나아가는 지눌의 돈오점수 과정과 웨슬리가 말하는 칭의(稱義) 이후에 성화를 추구하는 과정 사이에 비교할 수 있는 지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철 이 돈오점수를 비판하며 주장한 돈오돈수적인 깨달음의 추구 방식을 기독교 사상 과 비교 분석한 작업은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으며, 서명원의 「비교종교학의 관점 에서 본 한국불교의 돈점논쟁,라는 논문만 있을 뿐이다.4) 서명원은 자신의 논문 에서 한국불교의 돈점논쟁에 나타난 각 사상이 기독교의 신학성서에 어떻게 적용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연구 또한 기독교의 사상과 돈오돈 수를 비교한 것이 아니라 돈인점수와 돈인돈수가 기독교 성서의 인물에 어떻게 적 용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을 뿐이다. 돈오돈수 사상과 기독교 구원사상을 비 교한 연구의 부재는 기독교적인 돈오돈수 사상을 기독교 기성 공동체의 논의 속에 서는 발견하기 힘들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5)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기독교 주 류 사상에서 눈을 돌려 기성교회에서 이단 판정을 받았지만, 이들과 동일하게 기 독교 성서의 언어로 자신들의 사상을 표현하는 속칭 구원파의 구원 사상을 돈오돈 수와 비교해보고자 한 것이다.

<sup>3)</sup> 홍승철, 「지눌의 돈오사상과 웨슬리의 성화사상 대조연구」 (牧園大學校 大學院 석사논 문. 2000); 천정권. 「普照 知화과 존 웨슬리의 救援觀 比較研究」. (동국대학교 석사논문. 2010); 「普照 知화과 존 웨슬리의 宗敎的 救濟 方法論 比較 研究」 (동국대학교 박사논문 2013) 등.

<sup>4)</sup> 서명원 「비교종교학의 관점에서 본 한국불교의 頓褲論爭 - 頓悟頓修 없이는 그리스도교가 무너진다: 비교종교학의 관점에서 본 한국불교의 頓漸論爭」, 『보조사상』 24 (2005): 381-416.

<sup>5)</sup> 일반적으로 불교와 기독교는 깨달음의 대상과 깨달음을 추구하는 대상 사이를 다르게 설정하고 있다고 논의된다. 불교와 기독교 내의 사상적 다양성을 뒤로하고 그 차이점을 단순화하여, 즉 거칠게 표현해본다면, 불교는 '내가 곧 부처임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처럼 깨달음의 대상과 깨달음을 추구하는 자 사이의 일치성, 내재성을 강조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기독교는 일반적으로 신과 인간 사이에 넘나들 수 없는 간극을 설정하면서 타자성을 강조해왔다. 즉 기독교에서 '내가 곧 신이다'라는 주장은 그 간극을 파괴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거부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런 내용으로 미루어볼 때 인간으로서 깨달음과 닦음이 동시에 완성되는 완전한 깨달음이 가능하다는 것 또한 기독교 주류 사상에서는 부정될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성철의 돈오돈수 사상과 기독교에서 파생된 박옥수 구원파의 구원 사상을 비교하고 그 사상이 가지는 비판점을 분석하기 위해, 우선 2장에서는 성철의 돈오돈수 사상의 등장 배경과 그 사상적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돈오돈수는 최상근 기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다양한 근거를 들어 주장하고자 한다. 이어 3장에서는 박옥수 구원파의 구원 사상을 서술한 후 이 사상과 돈오돈수가 어떤 점에서 비교될수 있는지 유사점에 초점을 두고 논의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구원파 사상이 지닐 수 있는 한계 지점, 즉 최상근기만이 지닐 수 있는 돈오돈수적 깨침을 이론적 차원에서 모든 신도들에게 보편화시킬 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을 성철의 돈오돈수 사상과의 차이점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고자 한다.

#### 2. 돈오돈수 사상의 등장 배경과 특성

성철의 돈오돈수 사상은 그의 저서 『선문정로』에서 잘 드러난다.6) 그는 하택 (荷澤)과 규봉(圭峯), 그리고 보조(普照) 지눌로 이어지는 돈오점수 사상을 비판하며, 선문(禪門) 내에서 추구해야하는 것은 돈오돈수적 깨달음이라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지눌로 대표되는 돈오점수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은 정법을 흐트러뜨리는 지해종사들이다.7)지눌은 선지식에 근거해 단박에 깨달은(解悟) 이후에도 오랜 습기로 인해 다시 옛 습관에 젖어 들 수 있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점차적인 수행을 하여 구경각의 경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지눌이 해오(解悟)를 강조하게 된 것은, 언어에 함몰되어 깨달음과 무관한 지식의 축적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과 지성과 언어가 결핍된 채 깨달음으로의 비약을 꿈꾸는 맹목적 참선주의자들, 이 두 병증을 치유하고 교와 선의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시키기 위한이었다.8)지눌은 습기와 근기의 부족으로 인해 깨달음을 추구할 업두를

<sup>6)</sup> 退翁性徹. 『禪門正路』, (합천군: 海印叢林, 1981). 본 논문에서는 성철의 『선문정로』를 일반인에게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 해석을 덧붙인 『선문정로평석(禪門正路評釋)』을 주요 참고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sup>7)</sup> 성철, 『禪門正路評釋』, (장경각, 1993), 4.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살주의적 관점에서 돈오점수를 역설하였던 것 이다. 반면 성철은 수행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엘리트주의적 입장에서 9) 선문 내 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눌의 돈오점수적 수행론이 수행자들을 진정한 깨침에 서 멀어지게 한다고 비판하며 돈오돈수 사상을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10)

성철은 지눌의 돈오점수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자신의 사상을 피력해 나간다. 지 눌이 말하는 돈오는 해오(解悟)이며, 이 해오는 궁극적 깨침의 상태가 아니기 때 문에 지해(知解)라는 것이다. 선문(禪門)에서 지해는 진정한 깨침을 가로막는 장 애물이라 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잘못된 견해인 해오를 바탕으로 점수(漸修)하 게 되면 시작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증인(證悟)에 도달할 수 없게 된다. 이처럼 해오는 망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점수라는 법약이 필요하지만 겨섯(見性)은 망상 병이 없는 원증이므로 약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 한다.11) 그래서 수행자들에게 돈오점수가 아니라 깨침과 닦음이 동시에 완벽하게 완성되는 돈오돈수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돈오돈수에서 돈오는 해오적 깨달음이 아니라 근본무명인 제 8 아뢰야식의 미세망념까지 사라진 확철대오하고 완전무결 한 구경각이라 할 수 있다.

<sup>8)</sup> 박태원. 「돈점논쟁의 비판적 검토」, 『한국사상사학』 17, (한국사상사학회. 2001),

<sup>9)</sup> 강건기, 김호성 편저, 『깨달음, 돈오점수인가 돈오돈수인가: 돈점논쟁의 역사와 현재』, (민족사. 1992). 259.

<sup>10)</sup> 극단적으로 보이는 성철의 돈오돈수 사상은 그가 활동할 당시 혼란스러웠던 선교(禪 敎)의 상황적 배경 속에서 등장하였다. 박성배에 따르면 한국 선불교 교단의 참선 전통 은 신라말에 들어온 마조의 조사선과 고려말에 들어온 임제선이 함께 보급되어 임제선 에 강한 영향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마조, 황벽, 임제, 대혜로 이어지는 전통은 돈오돈 수적 공안선을 위주로 하는데, 여기에 속한 수행자들은 이와 다른 신회, 종밀, 지눌로 이어지는 돈오점수적인 수행론을 신봉하고 있었던 것이다. 겉은 임제인데 속은 종밀이 어서, 겉으로는 화두를 들고 있지만 속으로는 돈오점수사상을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은 겉과 속이 다른 호란을 만들어 버렸다. 성철은 이러한 호란스러운 상황을 바로잡고 임 제 식의 돈오돈수를 받아들이면 사상 또한 그러해야 하지 해오를 돈오로 여기는 등 이도 저도 아닌 설익은 수행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강건기 외, 『깨달음, 돈 오점수인가 돈오돈수인가』. 241 참조) 또한 60~70년대 국가 혼란기에 사법제도를 피해 대거 사찰로 유입된 사람들이 8.90년대 큰 스님이 되면서 '깨치지 못했으면서 깨친 자를 자처하는 풍토'가 생긴데 대한 강한 비판으로 궁극적 '깨침'이 강조되는 돈오돈수 사상을 들고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sup>11)</sup> 성철、『禪門正路評釋』, 189.

성철은 불교 수행의 가장 중요하고도 유일한 목표를 돈오돈수 혹은 견성(見性) 이라 불리는 '깨침'에 두고 있다. 『선문정로』에 의하면 견성이 바로 깨침이며 여래 이자 대열반, 구경각이고 성불이라 할 수 있다. 12) 성철에 따르면 모든 부처의 경계는 광대무변하여 알음알이로는 알지 못하고 견성을 해야만 완전히 알 수 있다. 실제로 서천의 28대 조사 가운데 한 사람도 견성하지 않고 조사가 된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13) 이렇게 견성하여 진여본성을 정확히 보고 구경의 깊은 뜻을 깨치게되면, 보배로운 조사의 지위에 오르게 되기 때문에 '돈'과 '점'의 방편을 논할 필요도 없으며, 지위와 점차를 밟아 닦을 필요도 사라지게 된다. 14)

견성을 위해서는 공안을 참구하여 돈오해야 한다. 성철은 제 8 아뢰야식인 미세 망념까지 깨뜨려 안팎이 환히 밝은 무생의 현묘한 길에서 한가로이 자재하기 위해서는 오직 참구해서 깨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15) 즉 참선하는 사람은 구경각을 얻기까지 해오 같은 것에 한눈팔지 말고 공안참구에 몰두해야 한다는 것이다. 16) 화두 참구를 통해 일상일여와 몽각일여, 오매일여라는 선문의 삼관을 통과해야 하는데, 궁극적으로 오매일여하고 확철대오하여 참된 구경각을 얻기까지 절대로 화두를 놓쳐서는 안된다. 제 6 의식에서 거친 망상이 제 7 식에서 없어진다 하더라도제 8 의 미세망상은 여전히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17) 그리고 성철은 오매일여한이후에도 반드시 눈이 밝은 본분종사를 찾아가서 의심을 영원히 결단해야 한다고말한다. 18) 그래서 성철이 예로 들고 있는 선문의 한 노스님은 제자가 공안 참구를통해 이치를 환히 깨닫게 되었다고 말해도, 혹여나 공안을 뚫지 못했을 것을 걱정하며 더 까다로운 공안을 계속 들어보였던 것이라 하겠다. 19)

이렇게 견성한 사람은 무심함을 보임한(保任無心) 삶을 살게 된다. 성철에 따르면 참 무심함에 닿으면 구경인 종착지에 이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무위무사한

<sup>12)</sup> 성철.『禪門正路評釋』, 22-23.

<sup>13)</sup> 성철, 『禪門正路評釋』, 24.

<sup>14)</sup> 성철、『禪門正路評釋』、25-26.

<sup>15)</sup> 성철、『禪門正路評釋』、160.

<sup>16)</sup> 강건기 외. 『깨달음. 돈오점수인가 돈오돈수인가』. 240.

<sup>17)</sup> 성철. 『禪門正路評釋』 125.

<sup>18)</sup> 성철, 『禪門正路評釋』, 128.

<sup>19)</sup> 성철、『禪門正路評釋』、136.

한가로운 경지에 거하게 된다. 20) 이렇게 무심한 자리에 도달하게 되면 모든 망념 과 습성이 다 없어지고. 지견과 알음알이를 모두 놓아버려 평상심을 갖추게 되는 데. 이를 무심함을 보임한다고 표현한다. 즉 무심하게 되면 남이 없고 함이 없는 크게 안락한 대해탈의 경계에서 억천만겁이 지나도록 한결같이 자유롭게 노닐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21) 이것이 진정한 깨침 이후에 오는 보임이다(悟後保任). 반 면 진정으로 깨치지 못한 해오의 상태에서 하는 이타행과 모든 행위는 지해의 알 음알이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습기로 인한 번뇌망상의 여지가 남아 있어 더 큰 망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수행에 큰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성철의 돈오돈수는 철저하다. 구경각에 이르는 그날까지 화두를 들어 수 행자를 끝까지 몰아세운다. 번뇌망상이 추호라도 남아있는 사람은 아직 구경각을 얻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돈오라 할 수 없으며, 완전히 깨치지 못한 상태이면서 스스로를 돈오라 착각하게 되면 절대로 끝까지 밀어붙이는 세찬 정진을 할 수 없 게 된다. 22) 그래서 성철은 해오를 강하게 비판하며 수행자들을 향해 이를 절대로 돈오로 여기면 안 된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진정한 깨침의 경지에 대해 아무것 도 모른다는 자각이 있을 때 벼랑 끝에 서 있는 심정으로 화두를 들이대고 깨어있 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럴 때 무명이 끊기고 미세망념이 사라지며 견성하여 대해탈 과 무심무념의 경지에서 평상심을 지닌 채 자유자재한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열리 게 되는 것이다.

#### 3. 구원파의 구원사상과 돈오돈수 사상 비교

이 장에서는 성철의 돈오돈수 사상에 대한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박옥수 구원파 의 구원사상을 논하면서 이 두 사상이 어떤 점에서 비교될 수 있는지 유사점에 초 점을 두고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앞서 우선 구원파의 구원사상이 기성 기독교 구

<sup>20)</sup> 성철,『禪門正路評釋』, 101-02.

<sup>21)</sup> 성철、『禪門正路評釋』、108.

<sup>22)</sup> 강건기 외. 『깨달음. 돈오점수인가 돈오돈수인가』. 241.

원관의 어떠한 흐름 속에서 등장한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기성 기독교의 교회사에서 일어났던 논의 중 대승불교 계의 선문(禪門)에서 일어난 돈점논쟁만큼 치열한 쟁점을 꼽는다면, 인간의 자유의지와 신의 전능성 중 무엇을 강조할 것인 가에 대한 논의일 것이다. 신의 전능성을 강조했던 대표적인 인물로 4세기 북아프리카 출신의 어거스틴(Augustine)을 꼽을 수 있다. 그는 인간의 본성 안에 내재되어있는 원죄를 강조하면서, 구원은 인간의 개인적 덕성이나 어진 행위가 아닌오직 신의 은총으로만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당시 원죄설을 부인하고 자유의지를 강조하면서 인간의 노력이 구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던 펠라기우스(Pelagius)를 비판하며, 자신의 주장을 강화한다. 나아가 나중에는 신이 인간적인 도덕성이나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받을 사람을 예정해 놓았다는 예정설을 주장하기도 한다. 그의 이러한 주장은 당시의 혼란스러운 사회와 그 사회 속에서 온갖 타락상을 경험하고 실천하기까지 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즉어거스틴 자신의 회심과 변화가 개인적인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오직 신의 은총때문에 가능했다는 고백적 사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23)

신의 전적인 은혜를 통한 구원을 강조하는 어거스틴의 사상은 16세기 종교 개혁 당시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와 장 칼뱅(Jean Calvin)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들은 가톨릭교회를 펠라기우스파로 비판하면서 엄격한 어거스틴 정신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였다. 이 또한 인간의 도덕적 행위에 전혀 기댈 수 없을만큼 타락한 당시의 교회 상황 속에서 나온 처절한 고백이라 할 수 있겠다. 루터는원죄로 인해 인간이 본성이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sola fide),오직 은혜로(sola gratia),오직 성경으로(sola scriptura)'돌아갈 것을 주장하였으며,24) 칼뱅은 이에서 더 나아가 예정설까지 수용한다. 하지만 단지 신의 은총을 통해 구원받는 것으로 신앙적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그 이후부터 신이 인간에게 준 소명을 찾고,그 소명을 다하기 위해 자신의 직업에 충실하고 성실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칼뱅에 따르면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사람들각자가 받은 소명에 대한 확신이며,그 소명(직업)을 철저히 추구하는 것이었기

<sup>23)</sup> 알랭 코르뱅 외, 주명철 역, 『역사속의 기독교』, (길, 2008), 133-40.

<sup>24)</sup> 알랭 코르뱅 외, 『역사속의 기독교』, 295-98.

때문이다 25) 반면 18세기 등장한 감리교(Methodist societies)의 창시자 존 웨 슬리(John Wesley)는 신의 전적인 은총을 강조하는 칼빈주의가 도덕적인 노력 을 무산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26) 믿음과 회개를 통해 거듭남의 체험을 한 이 후에 계속된 성화 과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27)

'죄 사함'과 '거듭남' 또는 '구원'을 강조하는 박옥수의 구원교리는 이와 같은 기 독교 사상의 논의와 구별된다. 박옥수는 한국 사회의 대변혁시기였던 1960년대에 글라스와 욕이라는 외국 선교사들의 집회에 참석하는 등 그 영향 속에서 그들에게 목사 안수를 받고 '기쁜소식선교회'를 창립하였다. '기쁜소식선교회'를 비롯한 속칭 구워파의 신학적 근간이 되는 사상을 가르친 이들 선교사는 기성 기독교의 신학교 에서 신학 공부를 하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다. 그들은 기성교회를 반복음적인 세 력으로 보았고. 체계적인 신학을 공부하는 것은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타락하는 것이라고 여겼다. 28) 이들의 영향을 받은 박옥수는 기성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자 신의 죄를 계속적으로 회개할 필요 없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은 구원을 제대로 깨닫기만 하면 완벽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죄 사함과 구원 에 대한 깨달음을 중시하는 박옥수의 사상은. 어거스틴으로부터 시작되는 신의 은 총을 전적으로 강조하는 입장과도.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펠라기우스나 웨슬리 의 입장과도 구별된다. 오직 신의 은총으로 구원이 가능하지만 여전히 본질적으로 인간은 죄인이라는 입장을 지닌 기성 기독교 사상과 달리, 박옥수는 마음의 깨달 음'이라는 것을 통해 구원을 받게 되며. 구원받은 이후에는 전적으로 의인이 된다. 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성화나 인간의 선한 행위 등을 강조하는 것과는 차별화 된 돈수(頓修)적인 주장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마음의 깨달음을 강조하고. 한 번 '죄 사함과 거듭남의 비밀'을 깨달은 이후에는

<sup>25)</sup> 알랭 코르뱅 외, 『역사속의 기독교』, 305-08.

<sup>26)</sup> 윌리스턴 워커, 송인설 역, 『기독교회사』, (크리스챤 다이제스트, 2004), 669.

<sup>27)</sup> 천정권, 「普照 知화과 존 웨슬리의 救援觀 比較研究」, 58-69.

<sup>28)</sup> 정동섭 외, 『구원파를 왜 이단이라 하는가?』, 47. 이 선교사들이 왜 기성교회를 반복 음적인 세력으로 보았으며 체계적인 신학을 공부하는 것이 타락하는 행위라고 했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 자료는 거의 없다. 참고로 정동섭은 권신찬, 유병언의 '기독 교복음침례회' 탈퇴자로 1977년부터 8년 동안 권신찬. 유병언의 '기독교복음침례회'에 서 유병언의 통역 비서로 활동한 바 있다.

더 이상 회개하고 닦을 필요가 없다는 박옥수의 주장은 오히려 깨달음과 닦음이 즉시적으로,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라는 성철의 돈오돈수 사상과 비교될 수 있는 지점이 많다. 물론 박옥수의 사상은 성철처럼 깨치지 못한 자들이 깨쳤다고 생각하는 병폐에 대한 고뇌 속에서 등장한 것이 아니었다. 우선 그는 외부 선교사들의 사상에 영향을 받았다. 박옥수는 글라스의 "자신도 구원받지 못했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 을 전도할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듣고 구원에 대한 문제로 고민하게 되었다고 한다. 29)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하는 닦음(전도)은 죄라는 것이다. 이렇게 죄의 문제 때문에 괴로웠던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백도 하고, 회개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금식기도도 하고. 철야기도도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았는데. 오히려 하면 할수록 마음의 죄가 더 무거워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렇게 괴로 워하던 중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구원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 다.30) 그의 주장에 따른다면 그는 흔히 기성교회에서 요구하는 닦음(계속된 회개와 헌금. 봉사 등)'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의 확신을 주는데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인식 속에서. 이와는 차별화된 구원 경험을 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는 계속된 닦음이 구원을 기능하게 할 수 있다는 관점이 사람들을 오히려 그 행위 들에 얽매이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깨달음과 닦음이 동시에 완성되 어 더 이상 닦음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는 구원사상을 들고 나온 것이라 하겠다.

이처럼 성철과 박옥수 각각의 사상이 등장한 배경은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 이 두 사상은 그 내용적인 면에서 여러 유사점들이 발견된다. 첫째로. 박옥수는 마음 에서의 깨달음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번뇌망상과 무심무념 등 모든 것의 원인이 되는 마음에 대해 말하고 이를 깨치는 '깨침'을 강조하는 성철의 돈오돈수적 가르 침과 비교될 수 있다. 구원파에서는 '죄 사함의 비밀'을 깨달아야 구원받을 수 있 고. 이를 제대로 깨닫기만 하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깨달음 을 강조한다.31) 또한 이 깨달음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면서 마음 상태 의 중요성에 대해 누누이 언급한다.

<sup>29)</sup> 기쁜소식선교회 홈페이지(http://www.goodnews.or.kr/board/view/BOD\_ID/ historyofthechurch /B NO/3) 참조.

<sup>30)</sup> 박옥수.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1』. (기쁜소식사. 1988). 133-36.

<sup>31)</sup> 정동섭 외. 『구원파를 왜 이단이라 하는가?』, 51-58.

"죄 사함 받았습니까?" "받았지요" "그럼 죄 없겠네요?" "그렇지만 죄야 있지요." 무엇인가 무제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죄를 다 씻었으면 없어야 하는데, 씻어도 죄가 있으면 씻으나마나 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혀 우리 죄를 씻었다고 했는데, 죄가 남아 있으면 주님이 죽으시나마나 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 죄사함 은 우리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참 중요합니다.32)

박옥수는 그 성도들에게 '죄 사함'을 받았느냐는 질문을 던지면서 '죄가 있다'고 고백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이야기라고 말한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 데 아직도 죄가 남아있다는 것은 모순적으로 말이 안되는 주장이라는 것이다. 그 리고 이 '죄 사함'은 마음에서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나를 끌고 가는 너는 누구냐』33)에서도 박옥수는 나를 끌고 가는 '너' 가 마음임을 강조하면서, 모든 문제의 중심에 마음이 있으며 마음에서 구워의 비 밀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둘째로. 박옥수는 마음에서 '죄 사함과 거듭남의 비밀'을 깨닫게 되면 완전한 구 원을 얻게 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성철의 '돈오' 혹은 '구경각'과 비교될 수 있다. 이 구원은 교리상 더 이상 닦을 필요가 없는 완벽한 깨침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실 그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표가 안나고. 여러분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들의 죄가 씻어진 것을 보시고 '이젠 됐다' 하시면서 '너희는 의롭다. 다시는 정죄하지 아니한다. 이제는 너희 죄를 기억지 아니하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34)

여러분. 아무리 유명한 부흥 목사의 이야기라 해도 성경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길이 아닙니다. 회개하면 죄가 씻어진다는 말이 성경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회개 해서 죄를 씻는 것도 성경적인 방법이 아닙니다.35)

<sup>32)</sup> 박옥수,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1』. 137-38.

<sup>33)</sup> 박옥수. 『나를 끌고 가는 너는 누구냐』. (온마인드. 2011) 참고.

<sup>34)</sup> 박옥수. 『죄 사함 거듭남의 비밀2』. (기쁜소식사. 1991). 146-47.

<sup>35)</sup> 박옥수, 『죄 사함 거듭남의 비밀2』. 50.

박옥수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인간의 죄가 사해져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를 깨닫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그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해서 죄를 씻을 필요가 없어진다. 그리고 기독교 성서에도 회개해서 죄가 씻어진다는 말이 나오지 않게 때문에 회개하는 것은 성경적 방법이 아니라고 말한다. 이처럼 '죄 사함의 비밀'을 제대로깨닫기만 하면 더 이상 닦을 필요가 없는 돈오를 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셋째로, 성철은 근본무명을 끊으면 한 번에 문득 깨치게 된다고<sup>36)</sup> 설하는데, 박옥수에게 완전한 구원을 위해 끊어내야 하는 근본무명이자 미세망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는 구원파에서 깨달음의 대상이 되는 '죄 사함의 비밀'이 무엇인지 확인하면 알 수 있다. 그는 '죄 사함'을 다루면서 성서에 나오는 '죄'를 '죄'와 '범죄'로 구분한다. 여기서 죄는 아담의 원죄(original sin)를 의미하며, 범죄는 자범죄(behavior sin)<sup>37)</sup>를 뜻한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9절을 근거로 이 중 '죄(원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의롭게 되어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된다고 주장한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라는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지은 죄를 하나하나 모두 고하면 죄가 씻어진다는 말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달랐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이라고 되어 있지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간음하는 것이 죄입니까? 천만에요.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문동병이 무엇입니까? 손가락이 빠지고 눈썹이 빠지고 코가 일그러지만 문동병입니까? 아닙니다. 그것들은 문동병의 증상이고 문동병의 결과이지, 문동병 자체는 아닙니다. 여러분, 장티푸스가무엇입니까? 열이 나고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장티푸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장티푸스 균이 들어갔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지요. 그것처럼 죄와 범죄도 근본적으로 다릅니다.38)

성경에는 죄와 범죄에 대해 명백하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

<sup>36)</sup> 성철、『禪門正路評釋』、27.

<sup>37)</sup> 박옥수는 '자범죄'를 기독교에서 흔히 쓰는 의미인 태어나면서부터 지은 죄, 일상생활을 통해서 저지르는 죄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sup>38)</sup> 박옥수, 『죄 사함, 거듭남의 비밀1』, 33.

를 자백하면…', 이 말씀에서 '내가 도둑질했습니다'하고 범죄한 것을 자백하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자백하라는 뜻입니다.39)

시편 51편 5절을 보십시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여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는 근본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그 자체를 고백 한 것입니다. 나는 죄 덩어리로 뭉쳐진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를 고백하는 것과 죄의 근본을 고백하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40)

그는 요한일서 1장 9절의 '죄'는 흔히 말하는 자범죄가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면 서 성서에서 죄와 범죄를 명백하게 구분하고 있으며, 죄를 자백하라는 것은 자신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 '원죄를 가진 인간'이라는 것을 고백하라는 뜻이 라고 주장하고 있다. 마지막 예시에서 죄의 결과(자범죄)와 죄의 근본(원죄)를 구 분하는 것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그가 말하는 근본무명은 '아담으 로부터 내려온 '원죄'를 회개해야 궁극적으로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되는지 모르고 계속 '자범죄'만 회개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자범죄' 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

박옥수에 따르면 '원죄'와 '자범죄'의 처리는 동시에 이루어진다. 그는 '원죄'쁜 아니라 '자범죄' 또한 예수가 십자가를 질 때 완전히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어떤 사람들은 원죄는 사함 받고 자범죄는 남겨 놓았다고 합니다. 주님이 '아이 고. 무거워. 도저히 안 되겠다. 원죄만 대강 씻어 줄께. 자범죄는 너희들이 해결해 라.' 그런 말이 성경 어디에, 몇 장 몇 절에 나옵니까? 그 이야기는 사탄 복음에나 나오는 예수님을 모욕하는 이야기에요. 주님은 하면하고 안 하면 안 하지. 어설프 게 하지는 않아요. 일단 하시면 깨끗하게 확실하게 완전하게 분명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면 다 하시지. 원죄는 씻고 자범죄는 왜 남겨 두었습니까? 설혹 자범 죄를 남겨 두었다손 치더라도 예수님이 그것을 씻어야지 우리가 어떻게 씻습니 까? 거짓 선지자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나름대로 똑똑한 척하면서 이야기해요.

<sup>39)</sup> 박옥수. 『죄 사함, 거듭남의 비밀1』, 36.

<sup>40)</sup> 박옥수, 『죄 사함, 거듭남의 비밀1』. 37.

성경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가지고 가셨다고 했어요."41)

박옥수는 만약 예수가 십자가에서 원죄만 해결했다고 하면 신의 전능성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죄와 자범죄를 구분하면 안되고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한꺼번에 해결되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가 용서받아야 하는 것이원죄임을 깨닫고 이를 고백함으로써 근본무명을 끊을 때 자범죄라는 미세망념도 동시에 사라지게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박옥수는 이와 같은 '죄 사함의 비밀'을 깨달음으로써 죄의 문제가 완벽하게. 그리고 영원히 해결된다고 주장한다.42)

넷째로, 박옥수는 '죄'와 '범죄', 그리고 '죄 사함의 비밀'에 대한 위의 주장을 근거로 깨달음과 닦음이 즉시에 함께 이루어지고 완성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즉구원받은 이후에는 더 이상 회개할 필요도, 닦을 필요도 없으며, 죄에 대한 회개는 단 한번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기성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회개를 촉구하는 것은 죄 자체(원죄)가 아니라 자범죄를 회개하는 것이기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증거가된다. 닦을 것이 남아 있다면 그 경지가 아무리 수승해도 '돈오'가 아니라는 성철의 말처럼, 박옥수는 회개할 것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진정한 죄사함 혹은 깨달음을 얻지못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여러분이 '실패했다'는 말은 안 하지만,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실패했다고 믿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에 실패하시지 않았다고 믿는다면, 여러분의 죄는 씻겨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

<sup>41)</sup> 박옥수,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3』, (기쁜소식사, 1992), 186.

<sup>42)</sup> 여기서 원죄와 자범죄에 대한 구원파의 논리를 불교의 근본무명, 미세망념 등에 비교한 것은 비유의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지 이 두 개념이 동일하다는 의미는 아니라. 성철, 더 넓게는 불교에서 말하는 근본무명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본성을 철저히 깨치고 내가 곧 부처임을 깨닫는 것을 가로막는 모든 분별적 사고를 이르는 말이라 할 수 있다. 그런 데 박옥수는 벌써 죄와 죄 아닌 것, 죄 중에서도 원죄와 자범죄인 것 등을 분별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사상과 미세망념과 근본무명의 내용을 등치시키고 있는 것이 아님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혀 죽으셔서 죄를 사하는 일에 성공하셨는데도. 죄가 그냥 남아 있다고 한다면 실 패한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까?43)

박옥수는 기성교회에서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 예수의 십자가 사거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십자가 사건을 인정한다면 모든 죄가 씻어진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그는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회개 대신 사귐을 위한 자백을 하게 된다고 말한다. 이 사귐을 위한 자백은 기성교회에 서 말하는 회개와 차별화되는데. 그 이유는 이미 죄 사함을 깨달아 의인이 된 자가 신과의 사귐을 목적으로 저절로 하게 되는 자백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의 입 장에서 기성교회 신도들은 원죄를 용서받고 완전히 의인되었다는 자각 없이 여전 히 죄인임을 고백하며 회개를 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것이고 그들의 회개 또 한 구원과는 상관없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된다.44)

구워파의 입장에서 기성교회 가르침과 박옥수 사상의 차이는 해오(解悟)와 증 오(證悟)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 해오가 증오와 다르듯이 구원파의 입장에서 그들이 말하는 궁극적인 '(원)죄'를 회개하는 것과 기성교회의 '칭의' 사건은 다르 다고 할 수 있다. 기성교회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회개를 하는 것 은. 구원파의 시각에서 볼 때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한 신의 전능성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깨달음이 된다. 따라서 지속적 회개를 유발하는 구원 경 험과 차별화되는 깨달음을 증득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즉 박옥수의 사상 에 따르면 기성교회의 교인들은 해오인 칭의 사건을 진정한 깨달음이라 착각하여 그 기반위에 회개를 통한 점진적인 성화 과정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시작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닦고 회개해도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잘못된 결과(지옥)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박옥수는 한번 '죄 사함, 거듭남의 비밀'을 깨닫게 되면, 회개 뿐 아니라 여타의 닦음이나 성화의 과정이 더 이상 요구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죄 사함을 받고 나면 성령이 들어와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애쓰

<sup>43)</sup> 박옥수.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3』. 257.

<sup>44)</sup> 배명희. 『칼빈의 구원론과 구원파의 구원론 비교연구』. (영남신학대학원 석사논문. 2006), 32-37.

지 않아도 저절로 신앙생활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일단 죄 사함을 받고 나면 그냥 내버려둬도 성경을 읽습니다. 옛날엔 '성경을 읽어야 좋다고 하더라면서 마음먹고 앉아도 잠만 왔는데 이제 맛이 생긴다는 것입니 다. 변화가 오고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시키지 않아도 교회 청소를 하고, 전도하고, 교회에 일이 있으면 물질로 뒷받침하며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45) 신앙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들어오시면, '주여! 믿습니다'하고 애를 쓰지 않아도. 꽃이 저절로 피듯이.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말씀이 그리워지고, 기도를 하고 싶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음에 강박관념을 주어 죄를 짓지 않고. 착한 일을 하게하고. 기도하게 하고. 연보를 하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46)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시면 더 이상 여러분 자신이 죄와 싸울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술을 끊으려고 담배를 끊으려고 도둑질을 하지 않으려고. 방탕한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전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 모든 죄악을 이기게 해주실 것입니다."47)

죄 사함을 받고 나면 저절로 성경을 읽게 되고, 시키지 않아도 교회 청소를 하고 전도하고 물질로 뒷받침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기도를 하고 싶게 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되며, 저절로 죄를 짓지 않고 착한 일을 하게 된다. 이제 더 이상 죄와 싸울 필요가 없으며 술이나 담배를 끊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으며, 도둑질이나 방탕한 생활을 하지 않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 이미 깨달은 자이기 때문에 저절로 예수가 이 모든 죄악을 이기게 해준다는 것이다. 이처럼 박옥수의 사상은 깨침과 닦음이 동시에 완성되는 돈오돈 수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sup>45)</sup> 박옥수.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2』. 245.

<sup>46)</sup> 박옥수.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2』. 243-4.

<sup>47)</sup> 박옥수,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1』, 16.

# 4. 구원파의 구원 사상이 지닐 수 있는 하계

본 장에서는 박옥수 구원파에서 말하는 '구원'이 성철이 제시했던 돈오돈수의 관 점과 어떤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그에 따라 현실적으로 가질 수 있는 한계 지점은 무엇인지 고찰하고자 한다 박옥수가 말하는 '죄 사함'에 대한 깨달음은 교리 내용만 놓고 볼 때 돈오돈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깨달음이라는 것이 마음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이며 마음에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자신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 다는 것을 깨달으면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 죄는 기독교에서 말하 는 원죄와 자범죄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 모든 죄가 이미 씻어졌다는 것을 완벽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럴 때 깨달음과 동시에 닦음이 완성되어 더 이상 회개할 필요도. 믿음의 행동들을 할 필요도 없어지게 된다. 이처럼 구원파의 깨달음과 닦음 은 교리상 동시에 완성되는 것인데, 이를 모든 신도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시키고 있다. 실제로 기쁜소식선교회 신자들은 자신들 단체로 입교하는 과정에서 구원의 확신을 얻을 것을 요구받으며,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구원받은 날짜'를 갖게 된다. 이는 기쁜소식선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다수의 간증문들에서도 확인 가능하 며, 다음의 기쁜소식선교회 탈퇴자들의 간증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성경공부가 끝나자 "정민아, 너 구원 안 받았지?"라고 물었다. 나는 "받은 것 같 아요"라고 대답했지만. "너 안 받았어"라며 따라오라고 했다. 참 이상했다. 분명히 "너는 의인이야"라고 계속 말해놓고서. 나는 구원 안 받았다니. 도대체 무슨 말인 가? 전도사와 내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자 전도사는 로마서를 보여 주면서 "말 씀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했다. 그 이야기를 계속했다. 나는 그 말을 듣자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느껴졌고. 새로운 세상을 보는 것 같았다. … 그 날짜 는 내가 그곳에서 구원받은 날짜가 되었다.48)

기쁜소식선교회를 처음 만난 것은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 때였다. 내게 친절 히 다가온 큰언니를 따라 수양회를 참석했다. 수양회는 '죄사함'이 주제였다. … 성경을 펴놓고 한참 이야기를 한 후 죄가 사해졌다는데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진 것도 아니라 이해하기가 여간 쉽지 않았다. 49)

<sup>48) 『</sup>현대종교』, 2012(7/8), 102.

사례자들은 기쁜소식선교회에 입교하는 과정에서 구원의 확신을 점검받고, 제대로 된 확신을 얻기 위해 교육을 받았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속칭 구원파에서 주장하는 '일회적 구원의 완전성'은 성철이 말했던 '돈오돈수'처 럼 최상근기에 속하는 특별한 몇몇의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구 원파 신도들에게 보편적으로 일어날 수 있으며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된다는 점에 서 차별점을 지닌다. 성철은 『선문정로』의 곳곳에서 견성성불(見性成佛)한 사람 이 얼마나 드문지에 대해 언급하는 등 돈오돈수적 깨침이 최상근기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마조대사 문하에 있던 88명 중 바른 안목을 증득한 사람은 두세 사람 뿌이었다"50)고 말하기도 하고 원 오가 대혜에게 하는 말을 빌려 견성의 경지에 도 달한 사람이 매우 드물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51) "여실히 참구하여 실지로 깨 달은 도인은 오늘에만 만나기 드문 것이 아니고 옛날에도 많이는 볼 수 없었다"는 언급을 하기도 한다.52) 지눌도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에서 돈오돈수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한계 밖의 교외별전에 대해 말하면서 어떤 이의 말을 빌려 돈오 돈수는 상상지(上上智)라고 주장하며, 상상지(上上智)인 최상근기의 사람은 한 가지를 들어도 천 가지를 깨닫고 한 생각(一念)도 생기지 않으며, 다른 사람은 미 치지 못하는 깨침이 있다고 표현한다. 또한 하택의 말을 빌려 그 생각이 본성과 상응하여 팔만 바라밀행을 한 번에 행할 수 있다고 덧붙인다. 이에 지눌은 그러한 최상근기의 사람은 다른 사람이 미치지 못할 바이므로 그 우열을 함부로 헤아릴 수 없다고 말하다 53) 이처럼 지눌도 돈오돈수적 깨침이 보편적으로 모두 일어날

<sup>49) 『</sup>현대종교』, 2013(12), 86.

<sup>50)</sup> 성철、『禪門正路評釋』, 247.

<sup>51)</sup> 성철、『禪門正路評釋』、253.

<sup>52)</sup> 성철、『禪門正路評釋』, 277.

<sup>53)</sup> 지눌, 김달진 역주, 『보조국사전서』, (고려원, 1992), 259. "지금은 우선 원돈의 신해에 대해서 말했을 뿐이요 교외별전은 이 한계 밖 이니라 어떤 이는 "돈오돈수란 상상지(上上智)를 말한 것이니 그는 근성과 낙욕(樂欲)이 모두 뛰어나 한 가지를 들으면 천 가지를 깨달아 큰 총지를 얻고, 한 생각도 생기지 않아 과거와 미래가 끊어졌으니, 그는 삼업(三業)을 오직 혼자 환히 알고 다른 사람은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그의 업장을 끊는 것은 마치 한 타래의 실을 벨 때 만 가닥이 한꺼번에 끊어지는 것 같고, 한 타래의 실을 물들일 때에 만 가닥이 한꺼번에 물드는 것 같다. 하택이 말하기를 한 생각이 본성과 상응하며 팔만의 바라밀행을 한꺼번에 행할 수 있다 하였으니, 이것을 실제에 나아가 말한다면 저 우두종의 법융의 부류와 같은 것이다"고 하였다. 이미 그 사람의 삼업은 다른 사람으로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두종의 법융처럼 최상근기의 사람만이 가능하다고 주장하 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박옥수 구원파의 '돈오돈수적 구원'은 해당 공동체 신자라면 누구나 확신 하고 있고, 확신해야 하는 것이다. 박옥수 구원파 공동체인 기쁜소식선교회 신자 들은 실제로 자신이 구원받은 날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성철에게는 불가능했던 돈오돈수적 구원이 박옥수의 공동체에서 가능했던 이유는 그 깨침의 성격과 과정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성철은 분별지를 일으키는 일 체의 번뇌망상을 화두를 통해 철저히 깨뜨릴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그 '깨침'에 특정한 길이나 절차 받아들여야 하는 내용이 따로 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오히 려 옳고 그름 따위의 모든 미세망념을 추호라도 남겨놓지 않고 깨뜨려나가면서 '온 데가데없이 갑작스레 깨치는 깨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박옥수는 '죄 사함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 말한다. '죄'와 '자범죄'의 차이에 대해 말하며. 어 떤 죄를 용서받아야 하며, 무엇을 믿고 깨달아야 하는지 제시한다. 그러면서 신도 들 모두에게 구원받은 날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함을 주문하는 것이다.54)

여러분은 교회를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죄 씻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죄가 눈처럼 희게 씻어지는지 그 방법을 알고 계십 니까?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씻어지겠지'가 아닙니다. 확실하게 죄가 씻어져야 합니다. '기쁜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렇게 죄를 사함 받는 날이 여러분 에게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날이 없으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늘 어두운 죄의 그림자가 막혀 있어서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입할 수가 없습니다. … 저는 죄 속에서 고민하다가 1962년에 예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55)

오늘이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명확하게 기록되는 날이 되어지기 를 바랍니다.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날.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56)

는 알지 못한다 하였으니. 어찌 사람이 정으로 그 우열을 헤아릴 수 있겠는가?" 54) 정동섭은 그의 책에서 박옥수가 구워받은 날, 죄 사함 받은 날, 거듭난 날을 알아야 구원받은 자이며, 알지 못하거나 머뭇머뭇거리면 구원받지 못했다고 단정 짓는다고 서술 하고 있다. 정동섭 외. 『구원파를 왜 이단이라 하는가?』. 76.

<sup>55)</sup> 박옥수,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1』, 39.

박옥수는 '정확하게 죄 씻는 방법'이 있다고 표현한다. 그에 따르면 이는 기성교회에서처럼 단순히 예수를 믿는 차원과 차별화되는 '확실히' 죄를 씻는 방법이다. 그리고 자신은 1962년에 확실히 죄를 씻고 죄 사함 받았다고 말하고 있다. 죄 사함을 받아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명확하게 기록되는 날에 대한 언급도 '구원받은 날'을 상정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이처럼 박옥수 구원파에서는 기존의기성교회에서 믿고 있었던 구원에 대한 관념은 깨뜨렸을지 모르지만, 신자들에게자신들 공동체에서 주장하는 구원에 대한 제한되고 공식화된 관념을 새롭게 축적시킴으로써 진정한 구원이 가능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진정한' 구원의 확신을 얻었기 때문에, 최 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저절로 모든 신앙생활이 충실히 이루어져야했던' 신자들은 자신들의 삶과 신앙적 고백 사이에 모순이 발생했음을 고백한다. 기쁜소식선교회의 탈퇴자는 아니지만, 권신찬 · 유병언 구원파에서 탈퇴한 한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구원파에서는 … 먼저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식하게 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사함 받았다고 증거한 뒤 이제는 죄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의인이 된 것을 시인하게 한 뒤 죄인이라는 용어조차 평생 동안 사용하지 않습니다.57)

마음속에는 늘 불안과 두려움이 있으면서도, 나는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깨달았으니 염려할 것이 없다고 거듭 다짐하면서 스스로 위로했다.58)

자신이 의인이 된 것을 시인하게 된 뒤에는 '죄인'이라는 용어조차 사용하지 않았음을 고백하고 있다. 그리고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도 구원받은 사람은 염려할 것이 없다는 법칙에 따라 스스로를 위로했다고 말한다. 기쁜소식선교회를 탈퇴한 한 탈퇴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구원받은 날짜에 들었던 교리가 정말 훌륭한 교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생활에도 변화가 왔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그곳에 출석하게 됐다. … 그곳에 계속

<sup>56)</sup> 박옥수.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1』. 260.

<sup>57)</sup> 정동섭 외. 『구원파를 왜 이단이라 하는가?』. 26-30.

<sup>58)</sup> 정동섭 외. 『구원파를 왜 이단이라 하는가?』. 84.

다니다보면 거기서 들은 말씀의 약효가 떨어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었다. 그럴 때 마다 나는 계속 그곳을 찾았다. … 어느 날 나는 그 단체의 허점을 서서히 발견하 게 되었다. 그들의 배타성이 보였고 나를 대하는 태도가 처음과는 달라져 있었다. 어떤 주제에 대한 내 의견을 말하면, 나에게 계속 자기만의 설교를 늘어놓으며 윽 박지르는 것 같았다. … 그 사람들이 윽박지르니까 나는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았 다. 내가 조용해지자 그 사람들은 나보고 "하나님께서 널 구속하셨다"고 했다. 59)

그는 기쁜소식선교회에서 구원받은 날짜를 얻은 후 생활에 변화가 왔다고 이야 기한다. 하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불편한 점을 발견했고. 이에 대해 의견을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가 차단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속된' 사람 으로 행동할 것을 주문받았다고 고백한다.

박옥수 구원파 신도들은 구원의 확신을 얻는 과정에서 수용해야 했던 교리 체계 가 있었던 것처럼 구워받은 사람이 해야 할 행동 양식에 대해서도 요구받고 있었 던 것이다. 박옥수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기성교 회 신도들을 비판하며. 그와 같은 고백과 행위들이 구원받지 못한 증거임을 비판 하였다. 그리고 '완전한' 죄사함을 위한 구원의 공식과 그에 따른 행동 양식을 제시 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이 단체의 신도들은 신앙생활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불안 과 궁금증과 의심 등의 생각들을 차단시키고 묻어둘 수밖에 없게 된다. 그것은 속 칭 구원파에서 제시하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다. 성철의 입장 에 따른다면 이는 분별지를 오히려 심화시키는 행동이 될 수밖에 없다. 끊임없이 옳은 것과 그른 것, 바른 것과 바르지 않은 것, 믿어야 할 것과 믿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기 때문이다. 또한 무엇인가를 깨달았다 하더라도 망념이 미세하게라 도 일어나면 계속된 공안 참구를 통해 구경각을 향해 철저히 스스로를 몰아세워야 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위와 같은 속칭 구원파 신자들의 모습은 그 '구원의 확신'이 라는 것에 대해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게 만든다.

구원파에서는 최상근기만이 지닐 수 있는 돈오돈수적 깨침을 이론적 혹은 교리 적 차원에서 모든 신도들에게 보편화시키고 있다. 돈오돈수적 깨침은 성철을 비롯

<sup>59) 『</sup>현대종교』, 2012(7/8), 103-4.

하여 지눌도 그의 글에서 암시하고 있듯이 상상지(上上智)의 사람. 최상근기의 사 람에게 가능한 경지라 할 수 있다. 서명원도 기독교 성서에 나오는 인물들을 돈오 돈수와 돈으점수에 대응시키면서 예수만이 돈으돈수적 깨침을 얻었다고 주장하였 다.60) 그만큼 그 경지에 오른 사람이 드물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철은 선문의 수행자들을 향해 돈오돈수를 주창하여 지해의 알음알이 상태를 깨쳤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림으로써. 그들이 궁극적인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 할 때까지 끊임없이 정진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하지만 구원파에서는 자유함과 구 워의 비밀을 진정으로 깨닫고 확철대오한 경지로 나아가는 그 깨침 자체를 추구하 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들의 깨달음은 공식화된 그들의 교리 자체가 목적 이 되어 이를 신자 개인이 확신하고 받아들이고, 아는 것을 중시하는 지해(知解) 적인 성격을 지닌다. 성철의 주장처럼 아직은 돈으의 경지를 꿈에도 모른다는 자 기 경지에 대한 철저한 부정이 있을 때 세차면서도 꾸준한 정진을 할 수 있다. 하 지만 구원파의 사람들은 '죄 사함의 확신'이라는 사상을 인정하고 확인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강조점을 둔다. 이에 따른다면 신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공식, 즉 '죄 사함과 거듭남의 비밀을 깨닫고 완전히 구원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필요 도 믿음의 행동을 할 필요도 없는 자'라는 극단적인 타이틀이 오히려 신자들을 그 만큼 구원과 의인의 삶이라는 것에 얽매이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sup>60)</sup> 기독교의 신약성서에 돈오돈수와 돈오점수 사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연구한 서명원 또한 그의 논문에서 돈오돈수는 최상근기인 예수에게 해당될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깨침과 닦음을 즉시에 완성하는 돈오돈수는 예수에게 해당되고, 해오 이후에 구경각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인 수행이 따라야 한다는 돈오점수는 예수의 제자에게서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는 예수가 공생활(公生活)을 시작하기 전에 돈오돈수에 비견할 수 있는 흡사 한 체험을 하였으며, 이후 죽을 때까지 진리의 궤도를 조금도 이탈하지 않고 이타행만을 실천한데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한다. 반면 그 제자들은 예수의 부름에 응답하여 제자가 된다는 점에서는 돈오이지만 그 후에도 더 오랜 시간을 두고 꾸준히 닦아야 한다 는 점에서 돈오점수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서명원, 「비교종교학의 관점에서 본 한국 불교의 頓潮論爭」, 참고.

## 5. 결론

본 논문의 목적은 성철의 돈오돈수와 박옥수 구원파의 구원 사상을 비교하고 그 사상이 지닌 한계점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구원파에서는 진정한 '죄 사함의 비밀' 을 깨달아 구워받은 이후에는 이미 전적인 구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회개나 봉 사와 같은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때문에 성화의 과정이 필요 하다고 말하는 기성 교회들의 주장은 진정으로 구원받지 못한 증거가 된다고 말한 다. 이와 같은 박옥수 구원파의 주장은. 깨침과 닦음이 즉시적이고 동시적으로 일 어나는 것이라는 성철의 돈오돈수 사상과 유사한 지점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 런데 박옥수가 말하는 궁극적 '깨달음'과 성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 '닦음'이라는 것 이 교리의 내용상 돈오돈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성철이 말하고자 했던 '깨침'과는 차별화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공안 참구라는 방편이 존재하지만 깨침 의 특정한 방법이나 길이 제시되지 않으며 '깨침' 자체가 수행의 목적이 되는 성철 의 돈오돈수와 달리, 구원파에서는 공식화된 깨달음의 대상과 과정, 그리고 깨달 은 이후의 삶을 따르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구워받은 날을 알지 못하거나 구워의 확신이 생긴 이후에 이를 의심하고 자신을 죄인이라 생각하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죄 사함과 거듭남의 비밀을 통해 얻게 되는 완전한 구원'을 모든 신도들에게 이론적으로 보편화여 적용시키고 있다. 구원파의 위와 같은 가르침과 행위들은 오히려 신도들을 '구원의 확신'이라 는 것에 더욱 얽매이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성철, 돈오돈수, 구원파, 기쁜소식선교회, 박옥수, 구원,

투고일: 2017.10.14. 심사종료일: 2017.11.01. 게재확정일: 2017.11.16.

## 참고문헌

1차 자료
김달진, 『보조국사전서』, 고려원, 1992.
退翁性徹. 『禪門正路』, 합천군: 海印叢林, 1981.
, 『禪門正路評釋』, 장경각, 1993.
박옥수,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1』, 기쁜소식사, 1988.
,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2』, 기쁜소식사, 1991.
,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3』, 기쁜소식사, 1992.
, 『나를 끌고 나는 너는 누구냐』, 온마인드, 2011.
『월간 현대종교』

#### 2차 자료

강건기, 김호성 편저, 『깨달음, 돈오점수인가 돈오돈수인가 : 돈점논쟁의 역사와 현재』, 민족사, 1992.

박성배, 『한국사상과 불교: 원효와 퇴계 그리고 돈점논쟁』, 혜안, 2009.

정동섭·이영애, 『구원파를 왜 이단이라 하는가?』, 죠이선교회, 2006.

알랭 코르뱅 외, 주명철 역, 『역사속의 기독교』, 길, 2008.

윌리스턴 워커, 송인설 역, 『기독교회사』, 크리스챤 다이제스트, 2004.

김기수, 「지눌의 선(禪) 사상을 통해서 본 존 웨슬리의 성화영성」, 협성대학교 신학대학원. 2004.

박태원, 「돈점논쟁의 비판적 검토」, 『한국사상사학』17, 한국사상사학회. 2001. 배명희, 『칼빈의 구원론과 구원파의 구원론 비교연구』, 영남신학대학원 석사논문, 2006.

서명원, 「비교종교학의 관점에서 본 한국불교의 頓漸論爭」, 보조사상24, 2005. 천정권, 「보조 지눌과 존 웨슬리의 구원관 비교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논문, 2010.

천정권, 「普照 知訥과 존 웨슬리의 宗教的 救濟 方法論 比較 研究」, 동국대학교 박사논문, 2013. <Abstract>

# A Comparative Study on Ock Soo Park Salvation Sect's Salvation Thought and Monk Seongcheol's Sudden Enlightenment and Sudden Cultivation

Lee, Jung Eun(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mpare Monk Seongcheol's sudden enlightenment and sudden cultivation and Ock Soo Park Salvation Sect(Good News Mission)'s salvation thought and analyze the salvation thought critically. Park argues that people don't need the process of sanctification such as repentance and service because they is fully redeemed if they realize the mystery about the forgiveness of sins he speak of. And after the believers of Good News Mission become convinced of salvation, they are naturally the perfect children of God and live by observing all the laws. Such a thought is similar to that of Seongcheol's sudden enlightenment and sudden cultivation, which claims that perfect enlightenment and cultivation occur immediately and simultaneously. But there are also differences between Seongcheol's thought and Park's. While Seongcheol asserts the people should break all faith and conviction for ultimate awakening, Park insists that the believers are fully saved by faith in the doctrine of the salvation of forgiveness and that day is the day of salvation of them. They should never doubt their faith and think of themselves as sinners after the date of salvation because acting like

that is an unredeemed evidence. (According to him, the people of the established church say that they are convinced of salvation, but they are not truly saved because they continue to repent.) Such a teaching of the salvation sect is more likely to make the life of the believers not to be free, but to become more confined to the conviction of salvation.

keywords: Monk Seongcheol, sudden enlightenment and sudden cultivation, Salvation Sect, Good News Mission, Pastor Ock Soo Park, Salvation.